

투데이 칼럼

변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자세

하 루하루를 살다보면 문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저 일상처럼 일하고 퇴근 후엔 모음이 다 뭐다 아무 생각없이 정해진 약속에 끌리듯 나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일이니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의식 없이 지나며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중국 선사어록인 임제록(臨濟錄)에 '수처 작주 입처 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처(隨處)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과 삶터이며, 작주(作主)는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라는 뜻이다. 즉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다."라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진실하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라는 가르침이다.

1980년대 초반 공직생활의 일상을 회상하던 그 당시엔 출근 후 마을



이 흥 대
변면면장

출장을 나가 정부에서 내려준 목표대로 통일벼 식재, 마을환경 가꾸기 등 하루일정을 마을주민과 함께하고 퇴근 시 전 직원 회의를 통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지금 공직 패턴과는 다른 생활을 해왔다.

요즘 면사무소직원의 일상을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민과의 교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일선행정이 정부주도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공공서비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직생활의 모습도 변한 것

이다. 바뀐 것은 행정뿐만이 아니다.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을 거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였으나, 사회갈등은 장기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중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아파트 단지 입주민 아이 보호를 위한 택배차량 진입금지 등 도시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바람을 타고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축사 신축에 따른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불협화음 등 농촌지역에서도 사회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대립, 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보다는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에 두 손 겹쳐붙이고 협심 단결하면 때가 그러한 감정은 나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공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변하거나 사회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다.

타인의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실하고 창의적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공익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구든 최상의 인생도, 행복도, 평화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자세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최고의 행복한 자리가 될 것이다.

독자제언

인명구조장비,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위한 필수아이템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계곡이나 바다 등 시원한 곳으로 떠나는 가족단위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나 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들은 물놀이 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물의 높이고 위험한 곳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꼭 점검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인명구조장비이다.

인명구조장비로는 대표적으로 구명조끼, 로프, 구명환 등이 있는데 이는 계곡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어딘가 비치되어 있다.

물놀이 장소 주변에 인명구조장비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장소면적 확인해야 한다. 인명구조장비는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물 상태의 변화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비치해둔 것

으로 보통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인명구조 장비함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

물놀이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기 전에 인명구조장비의 노후상태 또는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순찰차에 비치해둔다.

단약 인명구조장비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익수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신속히 112에 신고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 항상 주시하여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기대해 본다.

구보빈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로하니 "美,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하면 공급 불안정 초래"



스위스를 방문 중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킨다면 원유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일명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는 모습.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자치단체장들 '항심' 이 중요하다

제7호 태풍 프라베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곳곳에 많은 비를 쏟아 부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오후 1시까지 많은 비가 내렸다. 선유도의 440.5mm를 비롯해 군산271.4mm, 완주216mm, 부안218.5mm, 김제와 임실42.5mm, 전주35.4mm 등 상당한 강우량을 기록했다. 그로써서 도내에도 피해가 속출했다.

프라베론이 입힌 피해 사례를 여기 언급하자면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 우선 주목되는 게 가금류 5만6천여 마리가 폐사한 일이다. 임실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돼 주민들이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등 건물 10여 채가 침수됐고, 농경지 2640ha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송천역 인근을 달리던 KTX 열차가 멈춰서는 희안한 사고도 있었다.

태풍 프라베론은 그 힘이 대단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마

음가집을 다 잡게 하는데도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이다. 다들 취임식 대신에 재난 안전대책회의를 가졌거나 현장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의 경우는 임실군 운암면 암석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심민 입실 군수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올라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도지사를 비롯해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 행사 대신 재난 현장을 찾아가 대책을 도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태풍 프라베론은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는 많은 피해를 입혔어도 정작 상륙해서는 피해를 입힌 게 별로 없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도지사를 비롯해 다른 단체장들에게 도민 모두가 바라는 바는 이번에 보여준 처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속하는 항심이다.

전북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의 묘연한 행방

전북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 중 이상한 것이 있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지금은 어찌 잠잠하다.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래서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라도가 공표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절에서 그에 대해 짚어볼 바가 있다.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답답하다.

특히 사업 발굴을 책략자는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의도도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라도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현실 발흥이 늘 어렵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당부

다.

전북도가 여러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업 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 사업은 국화와 정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사업들을 분개도에 올려놓으려면 그래야 한다. 그걸 위해서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썼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다. 고용도 보다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 차원에서 남추면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는 구체적 추진을 위해 힘차게 뛰어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